

< 동정자료 >

박선호 차관 “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방역으로 어르신 안전 보호”

24일 시흥 고령자 복지주택 방역체계 점검 …거동불편자 등 위한 생활지원 살뜰히 챙겨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(화), 시흥은계 고령자복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민 및 사회복지관 직원을 격려했다.
 -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 19 방역 현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상세히 보고받은 박 차관은 “고령자복지주택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,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”고 강조하였다.
- 박 차관은 입주민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,
 - “철저한 생활방역과 함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도시락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 박차관은 “최근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한 바 있다.”며,
 - “다중 이용시설 운영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뤄지도록,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”고 하였다.

2020. 3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